

2016년도 제2차 이사회 결과보고

1. 이사회 개요

가. 개최일시 : 2016. 5. 23.(월) 14:00~16:00

나. 개최장소 : 비즈니스센터 5층 세미나실

다. 참석인원 : 15명

1) 이 사 : 13명(참석 9명, 서면 4명)

- 참석이사 : 이희재, 오재록, 김광성, 김용범, 김숙, 원수연, 안종철, 송종길, 최정규 (9명)

- 서면결의 : 조관제, 홍승우, 이충호, 홍정용 (4명)

2) 감 사 : 민승용, 이석민 (2명)

2. 안건 및 결과

가. 부의안건 처리결과

의안번호	안건명	처리결과
제2016-5호	2016년도 수입·지출 2차 변경 예산(안)	원안가결
보고순서	보고사항	소관부서
1	제19회 부천국제만화축제 진행사항 사전보고	축제사무국
2	한중만화영상체험관 건립 및 제1회 한중문화창의콘텐츠 포럼 개최 보고	글로벌사업팀
3	성과관리체계 및 운영방안 구축 연구용역 보고	경영지원팀
4	유니온글로벌CG투자조합 1차 회수금 수입 보고	산업진흥팀
5	2017년도 진흥원 국비 예산(안) 보고	정책기획팀
6	2016년도 제1차 이사회 개최 결과보고	
7	2016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나. 결과요지

1) [제2016-5호] 2016년도 수입·지출 2차 변경 예산(안)

• 제안사유

- 수입변경에 따른 수입·지출예산 변경
 - 부천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반영(출연금 및 시비보조금)
 - 외부사업 사업비 감액(총액 조정)
- 세부사업별 사업내용 조정에 따른 지출예산 변경

• 이사회 발언요지

-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문화부와 미래부에서 결성을 하고 올해 1월에 한중문화 합작 콘텐츠에 한해서 투자를 하는 전문 투자조합을 두 개점 결성을 하기로 발표를 했고 진흥원은 종전에 유니온 글로벌 투자조합에 2010년도부터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한 경험이 있음. 유니온글로벌 투자조합은 보고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총 150억중에 20억을 출자해서 다른 투자 조합에 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둬들이고 있으며, 종전에 투자조합을 운영했던 경험을 살려서 향후 7년정도 한중문화 콘텐츠 전문 투자조합에 70억 규모로 참여를 함으로써 문화콘텐츠에 많은 기업들이 선순환 형태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부천시와 협의를 통해서 저희쪽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음.
- 새롭게 들어온 예산에 대해 이사회를 통해서 의결하고자 이사회가 개최되었으면 전문투자조합과 관련해서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의회에서 이견들이 있었던건 사실임 부천시 예산이 넉넉치 않은데 70억을 투자조합에 사용하는 문제와 과연 그걸 진흥원에서 운영하는게 맞는지 논란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예산이 교부 되었음.
- 지금은 한중 합작 프로젝트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향후 제가 주장하는거는 합작 회사를 설립해서 현지에서 발급시스템이나 마케팅, 인력 이런 것들이 서로 융합이 돼야 실제적으로 문화상품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 함. 향후 조합에서 투자하는 방향이 어떤 프로젝트에 수익률을 보는게 아니라면 다양성에 대한 트렌드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예를 들자면 웹툰의 글로벌 전초기지를 중국 연태시에 한국이랑 같이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연속성도 있고 향후 만화 시장을 키워나가는데 유리하다는 생각이 듭.
- 500억 전체 규모라고 봤을 때는 부천시쪽에 만화 관련 기업이 전체 투자 대상은 아니겠지만 어찌 됐든 부천시가 선점을 하기 위한 70억을 먼저 투자를 결정하게 됨. 앞으로 이 투자와 관련 해서는 부천시와

관련된 기업들, 만화 관련된 기업에 대한 투자를 향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전략적인 측면에서 조합 운영사와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음.

- **논의결과**

- 원안가결

3) 보고사항

- **보고내역**

- 제19회 부천국제만화축제 진행사항 사전보고
- 한중만화영상체험관 건립 및 제1회 한중문화창의콘텐츠 포럼 개최 보고
- 성과관리체계 및 운영방안 구축 연구용역 보고
- 유니온글로벌CG투자조합 1차 회수금 수입 보고
- 2017년도 진흥원 국비 예산(안) 보고
- 2016년도 제1차 이사회 개최 결과보고
- 2016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 **이사회 발언요지**

- 박용제 작가의 갓 오브 하이스쿨은 만화를 게임으로 만든거고 나름대로 대중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극대화에서 축제때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 그동안 축제가 이사장님, 원장님 이하 직원들에 열심히 해서 유료 관객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걸로 알고 있지만 외국 관광객들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임. 부천시에 전체 시민들이 축제를 진행한다는 상징적인 행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아직 모든 것들이 확정이 아니라면 만화를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 행사를 진행해 보면 어떤지 의견이 있음.